

# 젊은층 위암 발생률 낮지만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문제

**건강 바로 알기**  
2030 세대와 위암

인스턴트·가공식품 줄이고 소화불량·속쓰림 지속될때 조기 검진을 가족력 있으면 40세 이전이라도 2년에 한번은 위내시경 검사받아야

## 서강석 사랑샘병원 원장

수년 전 35세의 남자가 약간의 소화불량과 배가 부른 느낌이 있어 진료를 받던 중 위암 진단을 받았다. 먼저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했는데 예기치 않게 복수가 차 있었다. 요즘은 결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인이 아닐 것 같았고, 복부 염증 소견도 없었다. 그렇다고 암의 전이에 의해 발생한 복수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다.

환자에게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 본적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젊고 증상도 없어 검사를 해 본적이 없다고 했다. 마침 아침 급식을 하고 와서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에 불규칙한 커다란 종양 덩어리가 관찰되었다. 조직 검사 결과 위암으로 확진되었다. 환자는 암센터로 전원되었고 수술이 불가능하여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약 2달 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1년 전에는 32세 여자 환자가 소화불량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였다. 이제 출산한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위내시경 결과 위에 커다란 위암이 발견되었고 복수도 차 있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진료를 하면서 가끔 젊은 나이의 위암 환자를 만나게 된다. 25세 남자 대학생이 소화불량 증상이 있어 내원하였다. 위내시경 결과 큰 위암이 발견되었다. 서둘러 수술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가장 어린 환자는 18세 여자 환자였는데 이미 말기 상태였다. 이처럼 20대, 30대 심지어 10대의 젊은 나이에 위암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 1위는 위암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젊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위암의 특징은 암 세포가 위벽을 따라 넓게 퍼지는 미만성 위암이 많고 진단되었을 때는 병기가 진행된 경우가 많다. 약 70%에서 미만성으로 발견된다고 한다. 즉 연령대가 높은 군보다 발생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 위암검진은 40세 이상에서 2년에 한번 시행하기 때문에 2030 젊은이들은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위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가 진단이 늦어지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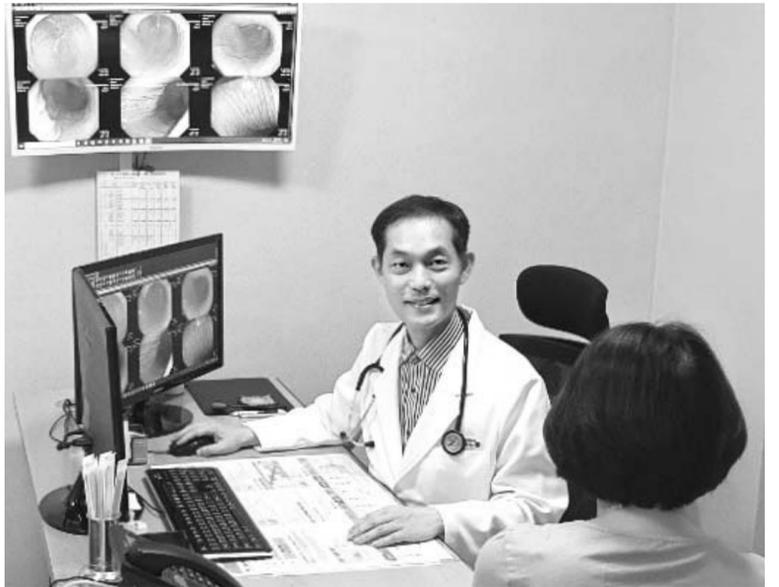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20~30대 젊은 나이라도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에 너무 자신하지 말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예방을 위한 건강 생활이다. 혼자 식사하는 혼밥 시대라 할지라도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짜고 매운 음식, 탄 음식을 최대한 줄이고 흡연은 삼가야 한다.

둘째는 소화불량, 속 쓰림, 구토 등의 위장관 질환 증상이 간헐적 혹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이를 통해 위염이나 위 혹은 십이지장 궤양을 진단하여 치료할 수 있고, 혹시 존재할지 모를 위암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을 때 또 하나의 장점은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헬리코박터균이 양성인 경우는 약물치료를 시행하여 헬리코박터균을 없애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젊은 나이에 이균이 양성인 경우는 나이가 들어 위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셋째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으로, 가족 중에 위암이 있는 경우에는 40세 이전이라도 2년에 한번 씩은 적극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개월 전엔 34세 여자 환자가 위 부위가 불편하고 체한 느낌이 있어 병원을 찾았다.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이 발견되었는데, 이번엔 정말 다행으로 위암 크기가 작았다. 그래서 수술을 시행 받고 건강



서강석 사랑샘병원 원장이 만성 속쓰림을 호소하는 40대 환자를 내시경 검사 후 상담하고 있다.

을 되찾았다. 오랜만에 경험하게 되는 좋은 결과였다.

필자는 내과의사로서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소화를 잘 시키고 배출을 잘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하여 경험해 왔다. 2030 세대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몸을 잘 돌보고 관리하여 기쁘고 복된 인생, 그리고 건강한 한국사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정리·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학교-건보공단 '대학생 건강보험 특강' 성료

조선대학교 취업학생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와 함께 최근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와 함께 하는 대학생 건강보험 특강'을 진행했다. (사진)

과적인 코로나19 예방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 김명선교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선정 난치성 복잡 골절 등 환자맞춤형 인공 관절 개발 박차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김명선(근골격계 조직재생 연구센터장·사진) 교수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난치성 복잡 골절 및 골결손 환자를 위한 환자맞춤형 인공 관절(어깨) 및 주관절(팔꿈치)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의료기기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 독자적인 의료기기의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전남대병원을 비롯해 서울



대병원·이대목동병원·중앙대병원·민간기업(썬커스메디)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행하며, 김명선 교수팀은 '복합 골절·골결손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비임상 및 임상연구' 부문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명선 교수팀은 향후 5년간 총 5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3D프린

팅 기반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와 확장현실(eXtended Reality·XR)을 활용한 골결손·골절 전주기 치료 솔루션 개발'에 앞장서게 된다.

이번 연구는 환자 영상 자료(CT)를 이용한 3D모델링 및 3D금속프린팅 기술, 인공지능(AI) 기반 자동구획화 및 확장현실(XR) 기술 등을 접목하여 어깨와 팔꿈치의 심각하고 복잡한 손상에 대해 수술 전 미리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병원 '청렴신고센터' 운영... 신고 창구 일원화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상용)이 온·오프라인에 분산돼 있는 부조리 신고창구를 일원화한 '청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남대병원 감사실(상임감사 이성길)은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는

내부통신망인 그룹웨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센터는 병원 홈페이지 그리고 부정부패 및 비위행위는 오프라인 등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신고창구를 그룹웨어에 청렴신고센터로 일원화해 지난 16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로써 제보자들의 혼선을 피하고 접근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감사실의 신속한 업무처리 등 부패척결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병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다 책임 있고, 확실한 제보를 위해 기명제보만을 접수키로 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코로나19 후유증 한방 치료 광주시한의사회,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코로나-19 후유증 환자의 회복을 위한 무료 처방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이번 사업의 홍보와 상담 안내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에서는 현재까지 약 48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추가 감염자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한의사회에서는 약 30개소의 한방의료기관의 참여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한 한의진료단을 발족하였으며, 앞으로 광주 거주 후유증 환자 약 60명에 대해 치료용 한약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참가 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증 후 환자'로 퇴원 후 4주 이상 경과하였으나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이며, 한약 치료 비용은 광주시한의사회와 참여 의료기관들이 전액 부담한다. 지원 사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문의 전화 062-223-9481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